

문화

행복한 책임기

김별아의 '채홍' <해냄 권>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다. 대상이 어떤 것이든 사람은 대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으로 바랍직하고도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맺고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G. 스튜어티는 "인간이 사랑을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것이든 사랑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사랑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금기시된 시대가 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여성들의 수난사다. 이 시대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기녀들이나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었으며 고대 역사도 화류계 여성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었

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다. 그런 순빈은 조선 시대의 여성상보다는 지난 왕조인 고려 시대의 여성상에 더 가깝다. 이는 그녀의 집안 습속이 고려의 습속에 더 친숙했던 까닭에서 연유한다.

또 그녀가 세자 시절의 문종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모든 이들로부터 총명한 사랑을 받았던 자신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관계 맺기'를 의면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끈끈한 '관계 맺기'에 대한 소망이 벽에 부딪치자 그녀



순빈 봉씨의 기록되지 않은 사랑

고, 교태를 짓거나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는 남성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남자의 사랑은 그 인생의 일부이고 여자의 사랑은 그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한 빠이런의 말은 그래서 더더욱 슬프게 들린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금기에 도전하는 것은 과연 무모하기만 한 것일까. 지그 지글리는 "감히 도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가수 싸이는 "도전은 늘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떤 성질의 것이든 그 도전이 성공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채홍'의 순빈 봉씨는 '사랑'이라는 금기에 대해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을 했던 인물이다. 문종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녀는 그녀를 외면하는 문종에게 당당히 '사랑'을 요구했고 또 진정한 '사랑'을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현대음악, 친숙한 감성으로 다가옵니다

현대 음악 전문 앙상블 '루미나시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나마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의 음악은 나은 편. 웬지 '불협화음'이 연상되는 현대음악은 범접하기 어려운 높은 산처럼 여겨진다.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익숙해 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주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0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현대 음악 전문 앙상블 '루미나시아(Luminasia)'의 행보는 눈여겨 볼만하다.

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적, 응축된 음악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성을 전달하는 거죠. 현대음악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극음악, 뮤지컬 등과 완전히 분리되기 보다는 크로스 되는 경향이 많아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공연장에 오셨던 관객들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이런 음악회를 왜 안왔을까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구요. 동시대의 음악을 공유

20세기 음악부터 극음악까지 30세 이하 작품 공모 눈길

오늘 목요일새부터 초청 연주 11월22일 서울서 정기공연



하는 건 큰 즐거움입니다."(정현수) 루미나시아 공연의 레퍼토리가 완전히 현대음악으로만 짜여지는 건 아니다. 현대음악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모차르트 등 친숙한 음악들과 그 해 의미있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한국적 키워낸다. 말러 서거 100년이었던 지난해에는 말러의 '피아노 4중주' 3부 등이 뜻을 함께하면서 현재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현대음악은 듣기 어렵다고들 생 각을 하는데 오히려 현존하는 작곡가들이 만들어내는 요즘 음악들을 들어 보면 소프트하고 친숙한 감성들을 탐

될 관객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음악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의미가 더 커요. 예전에는 어떤 음악이 있었길래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현대음악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연원을 찾아보는 거죠."(양새미)

루미나시아는 정기연주회는 학구적인 레퍼토리로, 특별연주회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조금은 편안한 레퍼토리로 진행한다. 지난 5월 열렸던 '동화같은 음악이야기'는 영상과 동화 읽기 등을 함께 배치시켜 관객들이 좀 더 현대음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루미나시아는 광주문화재단 목요일새무대에 초청돼 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지금도 모차르트같은 음악가가 있나요?"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뤼티에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사라방드', 바레즈의 '이오니제이션 21' 등이다. 또 오는 11월 22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정기공연도 진행한다.

'루미나시아'의 활동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30세 이하 젊은 작곡가의 작품 공모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올 공모 당선작인 김민지(전남대 대학원)

씨의 '현악사중주곡 1번'이 연주될 예정이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받는 건 진짜 행운이죠. 여럿이 함께하면서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게 즐겁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에너지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정현수 교수는 "다소 유동적이었던 단원 구성을 확정하고, 기금 확보 등을 통해 좀 더 멋진 음악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ekim@kwangju.co.kr

화장실 사수 '유린타운'

오늘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졸업작품 공연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2012 졸업작품 작품인 뮤지컬 '유린타운'이 관객들을 만난다. 4일 오후 3시·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우리말로 '오줌마을'을 뜻하는 뮤지컬 '유린타운'은 2001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무대에 올랐던 작품으로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수십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마을에서 클로드델은 공중화장실 경영권

을 독점하고 온갖 횡포를 부리며 살아간다. 화장실을 이용할 돈이 없어 노상방뇨를 하게 되는 이들은 오줌마을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항의해 바비 등은 민중봉기를 일으키는데...

지난 1996년 첫 입학생을 받은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는 지금까지 80여편의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김민지기자 mekim@kwangju.co.kr

'뜸새호텔' 예약 완료

비엔날레재단 체험자 25명 선정.. 9일부터 진행

광주비엔날레재단은 3일 '2012 폴라 (Folly)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했던 설치미술가 서도호(50)씨의 뜸새호텔 작품 체험자 25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자 25명 중 21명이 여성이며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이조흠 작가가 체험을 신청하는 등 10명으로 가장 많다. 또 서울 5명, 경기

4명, 부산·대전·대구·전남·전북은 각각 1명씩 선정되는 등 광주비엔날레의 국내 홍보를 위해 지역별로 체험 인원을 선정했다는 게 재단측 입장이다.

비엔날레재단은 체험자들의 희망 숙박 날짜를 우선 반영해 오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범적으로 뜸새호텔 숙박 체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뜸새호텔 정비·점검 등을 위해 일요일 체험은 실시하지 않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만 체험을 진행키로 했다.

비엔날레재단은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다른 집과 집, 명소와 명소 사이 좁은 뜸새에 들어가 머무르는 숙박 체험을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엔날레재단은 시범 운영에 앞서 8일 강운태 광주시장의 뜸새호텔 체험 여부를 검토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jhr.com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주류서비스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Be natural Be delicious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상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